

지역 소식통

부안군의회, 임시회기간 침수피해 현장 실태 점검

부안군의회 문찬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 응답을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임시회 진행을 최소화 하고 28일~29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수해현장을 직접 방문해 피해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부안군은 29일 오전 8시 현재 평균 74.7mm의 비가 내렸으며 행안면은 106.8mm로 최고 강우량을 기록했다. 부안군의회 의원들은 이날 관내 농작물 침수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농작물 및 주택 등 피해 복구에 발 빠른 대응 방안 및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부안군의회 문찬기 의장은 "지속된 폭우로 인해 군민들께서 겪으셨을 불편과 피해를 생각하니 무거운 마음 뿐"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피해를 복구하고 후유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와 협력하여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보건소, 폭염 대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부안군 보건소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폭염대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방문전담 간호사 5명이 담당마을의 취약가구를 방문해 대상자들의 건강상태 확인 및 기초검사, 폭염대비 건강교육 등을 실시하며 대상자별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정기적으로 안부전화를 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폭염피해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낮 외출 피하기, 적정한 수분 섭취, 현기증·두통·구토 등의 증상시 119 연락 및 병원 내원 등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농기계 임대료 반값 연장”

정읍시, 연말까지... 4000여 농가 5000만원 추가 혜택
코로나19 장기화 따른 인력난 해소·경영비 절감 기대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농가의 인력난 해소와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해 임대료 인하 기간을 12월 말까지 5개월간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지역 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12월 말까지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전 기종(143종 1,314대)에 대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에 따라 본소를 비롯해 4개소 권역별로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며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다.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한 지난 4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실적은 4,715개 농가가 5,343대의 농기계를 임대했다. 전년 대비 15% 증가했으며, 임대료

감면 규모도 총 5천2백여만원에 달하는 등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2월까지 임대료 인하 기간을 연장할 경우 약 4천여 농가가 5천만원의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가들이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연장으로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기계 임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부농기계 임대사업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과 고창팜팜사업단이 고창읍성과 인근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소리꾼과 함께하는 솔바람 댕요소리 고창읍성 여름나기'를 운영한다

“소리꾼과 함께하는 힐링여행 떠나요”

고창군 · 팜팜사업단, 고창읍성 여행 프로그램 운영

고창군과 고창팜팜사업단이 고창읍성과 인근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소리꾼과 함께하는 솔바람 댕요소리 고창읍성 여름나기'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리꾼과 함께하는 솔바람 댕요소리 고창읍성 여름나기'는 고창읍성과 관소리박물관, 중거리당산과 고창전통시장(자유관광)을 잇는 도보 산책 프로그램이다.

여행자카페 '모로가게'에서 차 한잔 하면서 쉬어가는 시간도 포함해 '썬썬 썬썬(썬썬썬의 고창말)' 컨셉의 안전여행 힐링여행으로 주목받고 있다.

11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에 고창읍성 매표소에서 출발하며 주민공정여행사팜팜에서 예약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관소리 성지답게 전문 소리꾼도 참여해 일정 중간중간 흥겨운 소리와 해설을 맡았다.

특히 고창의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50세 이상)이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을 맡아 더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들은 풍부한 사회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여행객들에게 알찬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팜팜사업단(주민공정여행사팜팜)과 함께 고창여행정보제공, 여행컨설팅, 여행자카페(방문자센터) 운영을 통해 코로나19로 변화하는 관광트렌드, 관광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석진 기자

“물폭탄... 지역민 안전 최우선” 지자체 비상

부안군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28~29일 내린 장마철 집중호우로 농경지 및 시설하우스 침수 등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을 찾아 긴급 점검에 나섰다.

부안군은 28일 호우주의보에 이어 29일 호우경보가 발표되었으며, 29일 오전 8시 현재 평균 74.7mm의 비가 내렸고 행안면은 106mm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권익현 군수는 이날 시설하우스 피해 예상지역 2개소와 논공 등 40ha의 농작물 침수가 발생한 지역인 행안면, 하서면, 보안면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농작물 피해발생이 신속한 피해복구와 상습적인 피해지역은 영구적인 피해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권익현 군수는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사전 안전관리에 철저를 다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28~29일 내린 장마철 집중호우로 농경지 및 시설하우스 침수 등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을 찾아 긴급점검에 나섰다.

고, 사전 안전관리에 철저를 다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군은 대책본부를 가동해 관계 기관

과의 협업을 통해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신속한 응급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유진섭 시장은 29일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 우려 지역을 방문해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등 현장 행정을 펼쳤다.

시에 따르면, 정읍 지역에는 지난 28일부터 29일 오전까지 평균 70mm,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날 현장 방문은 장마로 인한 피해 지역을 점검하고 막바지에 이른 장마철에 추가 재해 방지를 위한 사전 대비 차원에서 이뤄졌다.

유 시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물 수위가 높아진 칠보면 동진천 현장을 방문

해 직접 물 수위를 확인하고 재방 시설의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

이어 폭우와 강풍에 대비해 비닐하우스와 가축시설, 농작물 등에 대한 시설물들을 재차 확인하고 관계자들에게 수시로 예찰 할 것을 당부했다. 또 상습점가 간판과 현수막 등 낙하 우려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 조치와 배수 펌프 가동 등을 점검토록 지시했다.

이날 유 시장은 산사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칠보면 무성리 주택도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피해 주민을 위로했다. 많은 비로 인해 토사가 자체 무게

를 이기지 못하고 인근 주택에 흘러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유 시장은 신속히 토사 제거 작업과 피해 주택의 응급 복구 등의 사후조치를 시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유 시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예방 대책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어르신들~ 건강한 여름 나세요”

정읍시, 취약계층 2만3302명 1억200만원 상당 영양죽 전달

정읍시가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어르신 간편 영양 죽을 지원한다.

영양죽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지정 기탁관 성금으로 마련됐으며,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배분 전달한다. 대상자는 취약계층 노인 중 기초연금 대상자 총 2만3,302명이며, 1억2000만원 상당의 영양죽이 지원된다.

1명당 마시는 죽 4팩(견과 단말 흑임자, 호박죽)이 제공되며 제품은 간편하게 짜서 먹을 수 있는 레토르트식

품으로 가공됐다. 29일 신태인읍을 시작으로 다음달 7일까지 약 8월간에 걸쳐 각 읍면동 대상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외출이 쉽지 않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한 끼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따뜻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